



문화예술

Latin American Culture

카리브 해의 해적과 해류

김희순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선박들에 대한 에티오피아 해적들의 공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영화나 동화책 속에서만 나올 법한 해적들이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새삼 놀랍기도 한 사건들이었다. 국사 시간에 배운 왜구가 떠오르기도 하는 해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출몰하고 있다.

그러나 해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난 여름에도 그 시리즈가 개봉한 <카리브 해의 해적>일 것이다. 또한 소설 속이나 영화 속 인물이기도 하고 실제 인물이기도 한 키다리 존 실버(Long John Silver)¹⁾, 후크 선장(Captain Hook)²⁾, 잭스패로우 선장(Captain Jack Sparrow, 영화 '카리브 해 해적'의 주인공), 키드 선장(Captain Kidd), 블랙비어드(Blackbeard), 앤보니(Arne Bonny) 등등은 그 이름만으로도 흥미진진하

1) 스티븐슨(R. L. Stevenson)의 소설 『보물섬』에 등장하는 인물.

2) 베리(J. M. Barrie)의 소설 『피터팬』에 등장하는 인물

다. 많은 이야기들에서 주인공은 과거 해적들이 남긴 보물지도를 찾거나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과연 그 보물들은 어디서 난 것이며, 왜 그들은 하필 카리브 해에서 주로 활약한 것일까?

2. 보물선의 집결지, 아바나

보물의 존재 여부는, 그것이 사실이든 허구든, 많은 이의 관심을 끈다. 16세기 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은광이 발견되자 스페인 정부는 식민지 경영의 방향을 은을 비롯한 광산업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멕시코의 중부 지방(타스코, 사카테카스, 과나후아토)과 현재 볼리비아의 포토시에 위치한 은 광산에서는 막대한 양의 은이 생산되었으며, 현재의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는 금의 주요 산지였다.

스페인 정부는 식민지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의 많은 양을 이베리아 반도로 수송하였는데, 대부분 험준한 고원지역에서 채취한 은을 스페인으로 수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 교통 기술의 발달 수준에 따라 유럽의 경제는 해상 교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아메리카 대륙의 주요 농산물인 설탕이나 담배의 재배지도 항구와의 접근성이 매우 주요한 입지 요인이 되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지형의 고도차가 매우 심하고 가항 하천이 매우 부족하였다.

우선 남미의 경우를 살펴보면, 안데스 산맥의 고지에 위치한 포토시에서 생산된 은은 나귀의 등에 실어 리마로 옮겼으며, 과야킬에서 생산된 금 또한 리마로 운송했다. 리마에 수합된 보물들은 스페인 해군의 보호 아래 파나마 지협까지 수송하였으며, 이후 육로를 통해 파나마 지협을 건넌 후 다시 아바나까지 운반하였다. 또한 현재의 콜롬비아 지역의 금과 은은 카르타헤나에서 모은 다음 아바나로 운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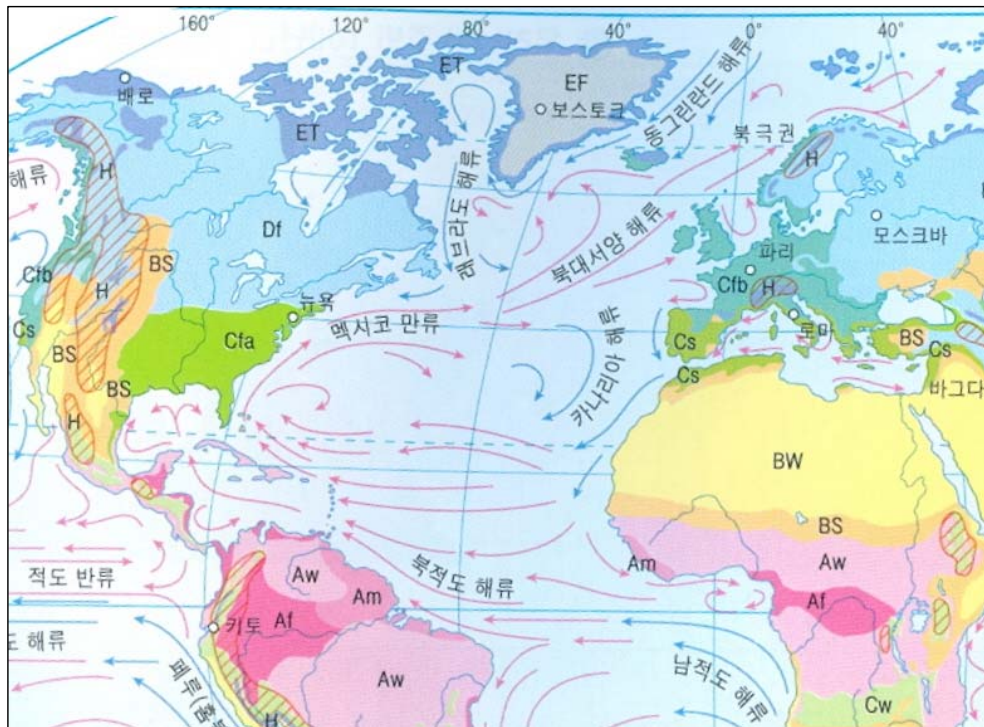
멕시코 중부 지방에서 생산된 은은 육로를 거쳐 베라크루스까지 운반

한 후 이후 해운을 통해 아바나로 수송하였다. 베라크루스 항은 멕시코 중부 지방의 은뿐 아니라 태평양 건너 마닐라에서 운송된 동양 상품들의 집산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도자기, 비단 등이 마닐라에서 아카풀코까지 해로로, 다시 아카풀코에서 멕시코 중부의 고원을 넘어 베라크루스까지 육로로 운송한 후 아바나로 보냈다.

스페인 식민지의 보물들이 대부분 아바나로 집결된 것은 플로리다 반도와 쿠바 사이에서 출발하는 멕시코만류가 유럽까지 흘러가므로 이를 이용하면 손쉽게 유럽에 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아바나에서 출발하여 플로리다 해협을 거쳐 스페인의 세비야까지 손쉽게 도달할 수 있는 일종의 해상 고속도로인 멕시코 만류를 타기 위하여 대부분의 선박들은 아바나로 집결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식민지의 보물을 유럽, 즉 스페인으로 수송하는 선박들이었다.

북대서양의 해류는 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멕시코 만에서 생성된 난류인 멕시코 만류는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을 따라 북상한 후 동진하여 이베리아 반도에 닿거나 다시 북대서양 해류를 따라 영국까지 도달한다. 차가워진 해류는 한류인 카나리아 해류가 되어 아프리카 대륙을 따라 남하하여 북회귀선 및 그 이남에서 다시 서진하여 카리브 해 및 멕시코 만에 이른다. 이러한 북대서양의 해류 순환 시스템은 유럽과 카리브 해 지역, 그리고 아메리카 간의 교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해류 및 항상풍은 유럽 및 아프리카, 아메리카 간의 삼각 무역에서도 이용되었다. 선박들은 아프리카와 교역할 면직물 및 총 같은 상품을 싣고 유럽을 출발한 후 카나리아 해류 및 무역풍을 타고 서아프리카의 기니 만에 쉽게 닿을 수 있었다. 기니 만에 도착한 선박의 상품은 아프리카의 노예와 교환되었다. 상품을 내리고 대신 노예를 실은 선박은 아프리카 북적도 해류를 타고 빠르게 서진할 수 있었으며 카리브 해에 쉽게 도착할 수 있었다. 카리브 해에 형성된 대규모 노예시장에 노예들을 내려놓은 배에는 다시 카리브 해 지역의 주요 생산품인 사탕수수과 럼을 실었



대서양의 해류 체계

으며 배는 다시 멕시코 만류를 이용해 다시 유럽으로 향하거나 북아메리카로 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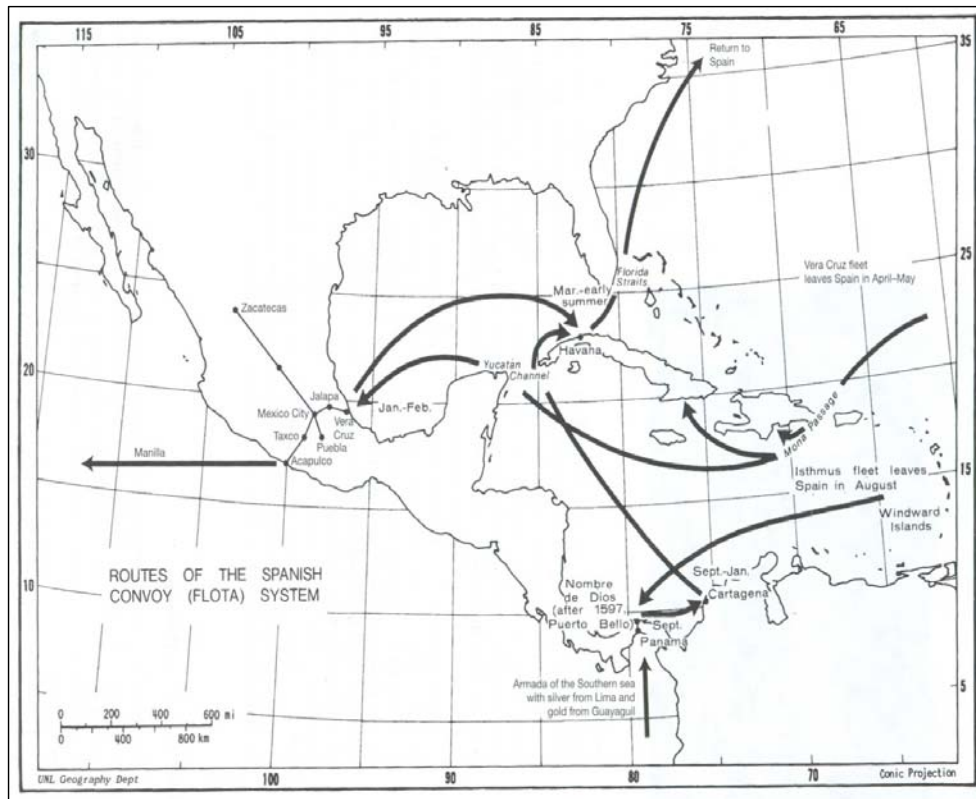
한편 카리브 해의 섬은 만이 많고 복잡하여 해적 기지에 적합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카리브 해 대부분 지역은 물에 잘 용식되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해안 동굴, 땅굴 등과 같이 은신처로 이용되기 쉬운 지형들이 잘 발달하였다. 토르투가(Tortuga, 현재 아이티의 북부 연안), 뉴프로비던스(New Providence, 현재의 바하마), 포트 로얄(Port Royal, 현재의 자메이카, 1692년 지진으로 파괴) 등에 대표적인 해적 기지들이 들어섰다. 이에 스페인은 카리브 해 및 플로리다 연안의 항구를 요새화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으며 화물의 수송을 보호하기 위한 대선단인 플로타(flota)를 구성하였다.

3. 유럽 열강의 지원

식민시기 스페인 정부의 행운은 유럽 각국의 시기를 샀으며 이는 사략선(정부의 허가를 받은 무장선)과 스페인의 보물을 노리는 해적들의 창궐로 이어졌다. 해적의 시기는 약 2세기 가량 지속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해적을 적극 지원하였다. 당시 유럽 열강의 정부나 상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해적의 존재를 묵인하거나 지원하였다. 하지만 국제 무역이 안정된 이후에는 해적을 소탕하였다. 예를 들어 17세기 말 악명 높은 해적 중의 하나인 키드 선장이 이끈 해적단은 영국인과 프랑스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륙 간 무역이 안정된 이후 키드 선장은 영국군에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카리브 해뿐 아니라 리마에서 파나마까지의 노선, 마닐라에서 아카폴코까지의 노선 등 스페인의 보물선이 지나가는 경로는 해적들에게 주요한 공격 대상이었다. 이에 스페인은 호송선단(플로타) 시스템에 의해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보물선 선단을 호위하였으며, 일 년에 두 번만 식민지에서 이베리아 반도까지의 플로타를 운행하였다. 유럽 열강의 해군 지원을 받은 해적이거나 사략선들이라 해도 선단 전체를 나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1627년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해군이 쿠바의 마탄사스 만에서 플로타를 습격하여 스페인의 보물선단 전체를 나포하기도 하였다.

해적은 선박 뿐 아니라 해안 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프랑스 해군은 1553년부터 1554년 사이 당시에는 방어가 허술하던 아바나를 공격하였다. 이후 스페인은 카르타헤나(콜롬비아, 이하 현재의 국가명), 베라크루스(멕시코), 산토도밍고(도미니카공화국), 산후안(푸에르토리코), 아바나(쿠바) 등에 강력한 요새를 건설하였으며, 플로리다 북부 해안의 샌어거스틴에도 요새를 건설하였다. 이들 요새들은 이 지역의 주요한 중심지, 즉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샌어거스틴은 북아메리카에 건설된 최초의



스페인의 플로타 시스템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해적인 자크 드 소어(Jacques de Sores)는 1588년 아바나를 점령한 후 도시의 대부분을 파괴하였다. 세계 일주항해(1577~1580년)를 마친 최초의 영국인인 프랜시스 드레이크(Francis Drake)도 산토도밍고와 카르타헤나를 비롯한 몇 개의 스페인 항구를 공격하였다. 그는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하는 것을 도와 엘리자베스 여왕시대 해군 영웅이 되었다.

17세기 말 활동한 키드 선장의 모험담을 소설화한 리치는¹⁾ 당시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던 해적을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 유형은 정부에서 허용하는 해적들이다. 특정 국가에서는 법적인 제도 내에서 해적 행위가 처벌되지 않거나, 정부

1) R. C. Ritchie, *Captain Kidd and the War against the Pirates*, Harvard Univ. Press, Cambridge, Mass, 1986.

가 이를 무시하거나 혹은 비밀리에 후원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스페인 보물선을 공격한 드레이크 선장의 약탈을 들 수 있으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스페인 보물 선단에 대한 대부분의 공격이 이에 속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해적은 유럽 제국의 주요한 수단으로, 그들의 공격은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유럽 제국들의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즉, 당시 유럽 제국들, 특히 영국 관리들은 해적들을 용인하였을 뿐 아니라 자국에 이익이 되는 한 해적을 장려하였다. 이 유형의 해적들이 번성한 것은 1570년경부터 1670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상업적 해적으로 상인들이 구성하거나 제국의 주변부가 용인하는 경우이며, 이들의 목적은 경화의 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뉴욕 최고의 부호였던 프레드릭 필립스(Frederic Phillipse)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해적들을 후원하거나 그들과 거래하였다. 이 유형은 1660년경부터 1700년경 사이에 번성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약탈을 일삼는 유형으로 크게 조직적인 약탈 그룹과 비조직적인 약탈 그룹으로 구성된다. 조직적인 약탈 그룹은 일정 지역에 기지를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냥꾼이나 해안 지역 출신 강도였던 카리브 해의 해적도 방어가 잘 갖춰진 몇몇 섬을 바탕으로 스페인인들을 공격하였다. 반면 비조직적인 약탈 그룹은 일정한 기지 없이 바다를 떠돌며 이합집산을 자유자재로 하였다. 1690년경부터 1730년경까지는 이러한 유형의 해적이 주를 이루었다.

4. 마치며

흥미롭게도 대부분 해적선들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조직되었다고 한다. 선원들은 그들의 선장을 선거로 선출하였고, 해적들은 자신들의 행

동규칙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해적 노릇은 젊은이들에게는(앤 보이나 매리 리드같은 여성들에게도) 모험적인 생활을 하고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해적들은 부를 얻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죽었으며 많은 이들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키드 선장은 1701년 영국에서 교수형을 당하였으며, 블랙비어드는 1718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추격 끝에 살해당하였다. 대조적으로 헨리



해적 선장, 블랙 비어드

모건(Henry Morgan)은 1671년 파나마를 약탈한 후 자메이카의 총독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오늘날 자메이카의 럼주 브랜드에 남아 있다.

많은 영화나 소설에서 미화되고 있지만 실제 해적들은 폭력적인 범죄 집단이었다. 해적의 활약에는 카리브 해를 비롯한 주요 활동 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해적의 출몰은 해당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적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고 일반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권동희 외(2010), 『고등학교 지리부도』, 천재교육.
 루벤스타인(2010), 『현대 인문지리: 세계를 펼쳐놓다』, 김희순 외 옮김, 시그마프레스.
 이승호(2007), 『기후학』, 푸른길.
 Blouet, B.W., Blouet, O., and Sargent, C.S.(2009), "Historical and cultural geography", in Blouet, B.W. and Blouet, 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Systematic and Regional Survey*(6th), Wiley, Hoboken, NJ.
 Bryan, G.S.(1941), "Geography and the Defence of the Caribbean and the

-
- Panama Canal,"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the American Geographers*, 31(2), 83-94.
- Gerhard, P.(1958), "The Tres Marias Pirates", *Pacific Historical Review*, 27(3), 239-244.
- Rediker, M.(1988), "Review: Pirates and the Imperial States," *Reviews in American History*, 16(3), 351-357.
- Sargent, C.S.(2006), "The Latin American City" in Blouet, B.W. and Blouet, 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Systematic and Regional Survey*(5th), Wiley, Hoboken, NJ.

김희순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